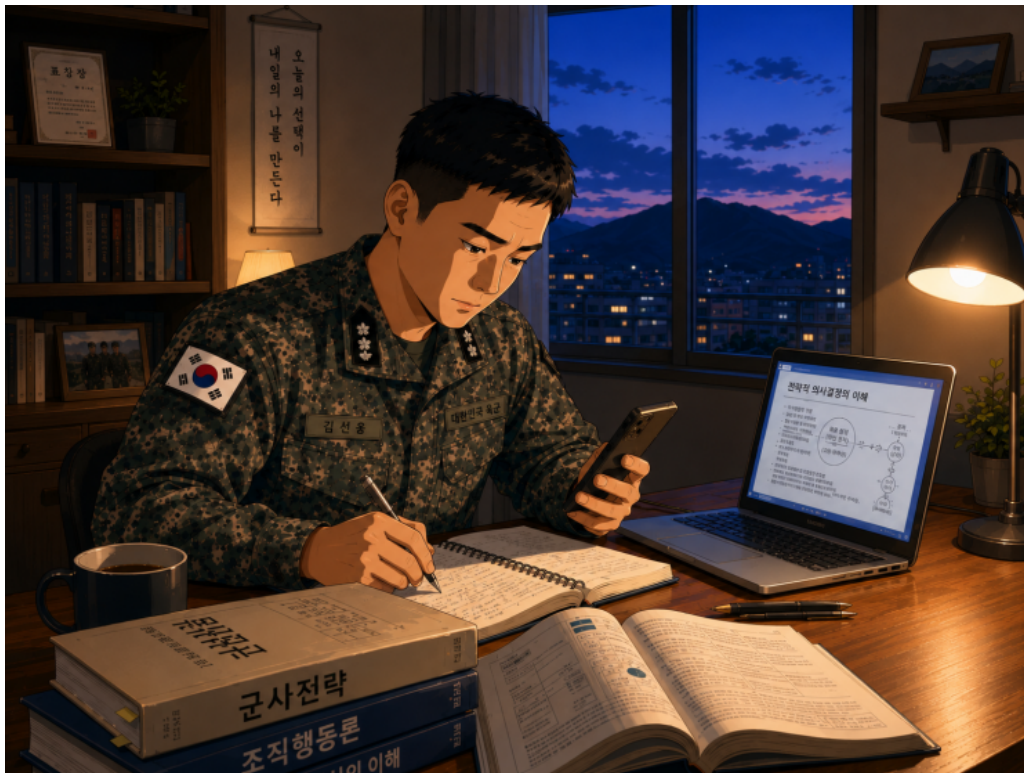


부제: 대대장이라는 본업과 학위과정을 병행하며 AI로 자기주도 학습을
설계한 나만의 기록

1. 시간이 없는 사람의 딜레마

올해로 입대 18년 차, 중령으로 진급해 강원도 원주의 한 대대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대장이라는 자리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 야간 훈련, 비상 상황, 예고 없는 면담까지 일정은 늘 유동적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는 학위과정도 동시에 밟고 있었다. 본업만으로도 벅찬데, 학습 시간까지 확보해야 하는 이중고였다. 학원에 다닐 수도, 정해진 스터디 그룹에 맞출 수도 없는 처지였다. 결국 답은 하나,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뿐이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혼자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였다.



2. AI를 검색창이 아니라 '개인교사'로 바꿔보다

처음에는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포털에 검색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I에게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학습 전체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쓰기 시작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이 세 가지였다.

- 모르는 개념을 물을 때 "쉽게 설명해줘"가 아니라 "이 개념을 군 행정 사례에 비유해서 설명해줘"처럼 내 상황에 맞는 비유를 요청했다.
- 진도를 나간 뒤에는 그 범위로 직접 예상문제·모의문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전 감각을 확인했다.
-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AI와 짧게 문답을 주고받으며 자투리 시간을 학습 시간으로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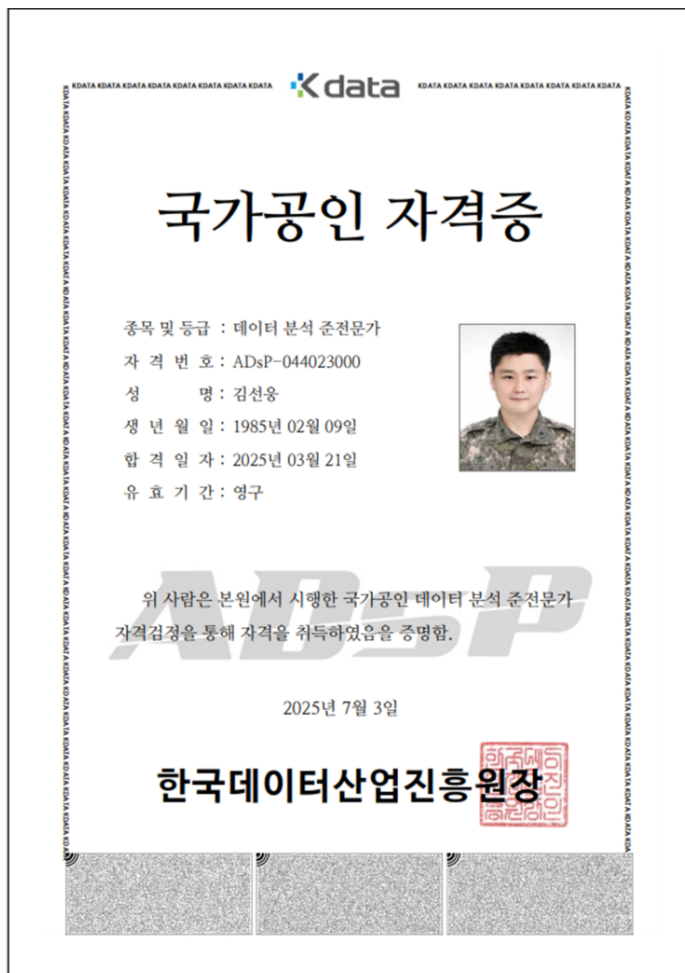
3. 가장 분명한 성과: ADsP 자격증, 준비 1개월 만에 단번에 합격

이 방식이 가장 뚜렷하게 효과를 본 사례가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자격증이었다. 본업과 학위과정을 병행하던 터라 시험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달뿐이었다. 정석대로 기본서를 처음부터 정독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학습 순서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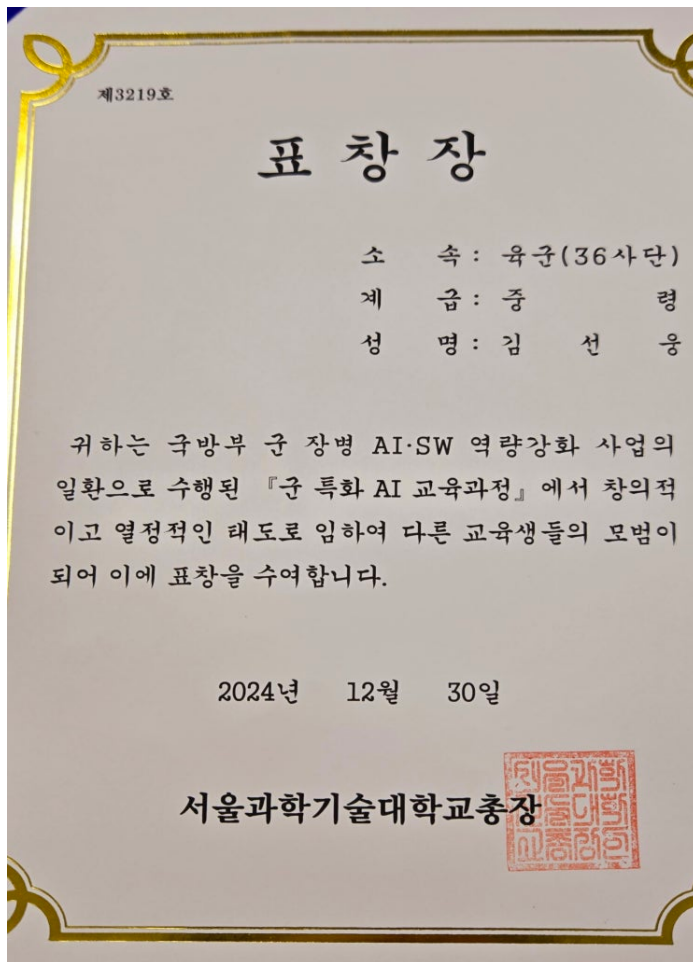
1. 범위 정리: 먼저 AI에게 ADsP 출제 영역과 단원별 비중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한 달 안에 우선순위를 둘 단원을 추렸다.
2. 모의문제 생성: 하루 학습한 단원이 끝나면 그 범위에 맞는 예상문제를 AI에게 만들어달라고 했다. 기본서 한 바퀴를 돌기 전에 이미 수십 개의 실전형 문제를 풀어본 셈이다.
3. 오답 재설명: 틀리거나 헷갈리는 문제는 AI에게 "왜 이게 정답인지, 어떤 부분에서 헷갈렸는지" 다시 풀어 설명해달라고 했다. 같은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두세 번 들으니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남았다.
4. 반복: 이 사이클(학습→모의문제→오답 재설명)을 한 달간 거의 매일 반복했다.

결과는 단 한 번의 응시로 합격이었다.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대신, AI가 그때그때 만들어준 문제로 약점을 먼저 찾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채워나간 전략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통했다.



4. 처음이 아니었던 확신

사실 이 학습법을 ADsP에서 처음 써본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석 달 앞선 2024년 12월,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 관련 강좌를 이수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총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비전공자 혼자 쌓은 결과라 뿌듯했지만, 그보다 값진 건 "이 방식이면 된다"는 확신을 그때 미리 얻어둔 것이었다. 그 확신 덕분에 ADsP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밀어붙일 수 있었고, 결과는 2025년 3월의 합격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이렇게 정리한 학습 사이클과 역량을 바탕으로 원주권역 4개 부대 간부 40~50명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회로도 이어졌다. 혼자 부족한 시간을 쪼개 익힌 방법이,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된 셈이다.

5. 학위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을 이어가다

이 학습법은 ADsP에서 끝나지 않았다. 동시에 진행 중인 석사 과정에서도 매 학기 다뤄야 할 개념이 쏟아지는데, 그 때마다 AI에게 핵심 개념을 정리해달라고 하고, 과제의 전체 구조를 함께 짜본 뒤, 실제 내용은 반드시 내가 직접 채워 넣었다. AI는 답을 대신 써주는 존재가 아니라, 막막한 백지를 마주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길을 잡아주는 역할이었다.

석사 과정에서는 생소한 전공 개념을 마주칠 때마다 AI에게 군 행정 업무나 일상적인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상적인 이론도 익숙한 비유로 들으면 훨씬 빠르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석사 과정에서는 한 주에 여러 과목의 과제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AI에게 과제별 핵심 요구사항과 분량, 마감일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세웠다. 어떤 과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정리 작업만으로도 시작하는 부담이 절반은 줄었다.

리포트나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는 AI에게 먼저 전체 목차와 흐름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 목차를 그대로 쓰는 일은 없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은 건너내고, 실제 내용은 전공 교재와 강의 자료를 다시 찾아가며 직접 채워 넣었다. 시험 기간에는 그동안 정리한 노트를 AI에게 보여주고 퀴즈 형식으로 질문해달라고 해서, 출퇴근길에도 짧게 복습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학습에 들어가는 진입장벽이었다. 예전에는 새 단원을 시작할 때마다 "이걸 언제 다 보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들었다면, 이제는 AI에게 먼저 큰 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한결 가벼워졌다. 결국 핵심은 AI가 공부를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시작과 정리를 도와주는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실제 이해와 암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었다.

6. AI를 쓰면서 지킨 원칙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싶다. AI가 만들어준 모의문제나 설명도 가끔 틀리거나 부정확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일수록 반드시 기본서나 공식 자료와 한 번 더 대조하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과제나 학습 자료에 포함된 민감한 내용은 AI에 그대로 업로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질문하는 식으로 정보 보안에도 신경 썼다. AI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7. 맺음말: 시간 없는 사람일수록 AI가 더 절실하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본업과 학업을 동시에 짊어진 처지에서 가장 부족했던 자원은 시간이었다. 정해진 학원 시간표에 맞출 수 없는 사람,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AI는 24시간 대기하는 개인교사였다.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할지 모를 때 우선순위를 잡아주고,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느는데 문제집을 살 시간조차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문제를 만들어주고, 같은 개념도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주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재현성이라고 생각한다. "범위 정리 → 모의문제 생성 → 오답 재설명 → 반복"이라는 사이클은 ADsP뿐 아니라 다른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이클을 거쳐 쌓은 학습 역량은 자격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인 학습으로, 그리고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으로까지 이어졌다. 나이나 전공, 그리고 시간의 많고 적음이 더는 자기주도 학습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경험이 직접 증명해 주었다.